

“4·3 완전한 해결 위해 특별법 법안 국회 통과 온 힘”



“제주 위해 힘쓰고 그 결과 평가받겠다”

제주시갑 송재호

최대 격전지로 꼽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당선인은 “기쁘고 고맙고, 참으로 무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당선인은 15일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국가 균형발전위원장을 하면서 단체장이나 시도지사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와는 달랐다. 굉장히 절실했고,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서 “이것들을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지점에 이르러 솔직히 자신없음도 있지만 반드시 조금씩 해결해야겠다는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당선 요인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안정적 국정관리와 경제 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정부를 향한 신뢰가 투영됐다고 본 송 당선인은 “도민과 시민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간의 경험과 모든 걸 살려 제 모든 걸 투여해서 제주도를 위해 쓰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유권자와 도민에게 평가받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국정 관리나 경제회생은

민주당 혼자 힘, 문재인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이고, 가능하면 야당의 뜻 있는 분들과 협력해야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의 정치를 이루는데 제주도와 협력을 물론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열정을 내비쳤다.

송 당선인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꼽았다.

그는 “배보상을 통한 4·3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은 쉽지않은 일이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꼭 실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이번 총선은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받아들이며, 만약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른기자 ejuh@ihalla.com



“4·3특별법 개정안, 이달 임시회 통과 노력”

제주시을 오영훈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이 유권자에게 감사함을 표한 후 가장 먼저 꺼낸 약속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었다.

15일 오영훈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위대한 제주시민의 선택이 승리를 만들었고, 오영훈을 더 크게 성장시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역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선 자격으로 임할 제21대 국회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재선의 힘으로 지역 차별, 섬의 차별을 극복하겠다”며 “우선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학력·출신 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객선석 중심의 제주항만에 물류항 기능을 보완해 제주 신앙만이 제주의 미래가 되고, 신남방 시대 대한민국의 진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선거전을 벌인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선전한 부상일 후보에게 위로와 격렷다”며 “그가 제주 발전을 위해 공약했던 1차 산업 보호와 제주시민이 겪는 정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 반영해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보고 세계 22개 이상 국가가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나라로 성장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한 것에서 나아가 2022년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송은기자 seb1119@ihalla.com



“발전된 서귀포 실현 위해 의정활동 집중”

서귀포시 위성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당선인이 15일 영광을 도민들에게 돌리며 “새로운 꿈과 더 발전된 서귀포시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이날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서귀포 곳곳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서귀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당선인은 국회에 재입성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우선 대정지역의 마늘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장관과 통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5월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 등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4년간 도의원과 국회의원으로 서귀포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현안과 대안을 고민해 왔다”며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만큼 더 큰 서귀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재선의원으로 당내 활동이 많아질 것 같다”며 “제주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중앙 정치에서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하며 힘있는 의원이 됐다. 당과 청와대 등 정부 주요 요직과 활동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 당선인은 “부유하지 않고 어렵게 자랐지만 시민들이 아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며 “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SINCE 1989
한라일보 31주년

꿈과 도전이 있는 건강한 제주!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축협조합협의회는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켜가는 사명과 의지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늘 푸른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축협조합협의회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강승호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김용관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고권진